송광사 근현대 고승 유묵을 만나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개최
기증받은 지선스님 유묵 등 전시
상설전 개편…내년 2월까지 진행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송광사의 근현대 고승들의 유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 스님)이 4월 2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기증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경주 보문선원 선원장 대허 스님과 천안 광덕사 안양암 주지 성탁 스님이 기증한 정계 지선 스님의 유묵 및 관련 자료와 송광사 선덕 천동 지진 스님이 기증한 근현대 고승 유묵과 유명 동양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지선 스님(1912~1988)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한의사로 활동하다가 27세에 만공 스님(1871~1946)의 수제자인 용음 스님(1887~1951)에게 출가했다. 지선 스님은 전형적인 구양순의 해서체를 배우고 익혀 스님만의 '지선체'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덕사 강원 강주로 주석하면서 인근 사찰과 전국 사찰의 주련, 편액 등에 글씨를 남겼다. 한의사였던 지선 스님은 전국에서 찾아온 아픈 스님들을 약으로 치유했으며 이런 스님 덕분에 당시 한약을 달이고 약재 써는 일이 광덕사 스님들의 일상이었다고 전한다.

1947년 태어난 천동 지진 스님은 1961년 대구 동화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1년 사미계를 받고, 1969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율사로 비구계를, 1970년에는 보살계를 받았다.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1969년 해인총림에서 하안거를 시작으로 여러 선원에서 수행정진 했다. 출가 이후 밀양 표충사와 통영 미래사 등에서 효봉 스님과 구산 스님을 모셨으며, 송광사에서는 원주, 교무 등 소임을 맡기도 했다. 지금은 송광사 선원 선덕으로 정진하고 있다.



지진 스님 기증 구하 스님 作 '관세음보살도'



대허 스님 기증 지선 스님 유묵 '불심'

지진 스님은 2020~2022년에 3번에 걸쳐 소장하던 근현대 스님들과 유명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을 송광사성보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 작품 중에는 구하(九河, 1872~1965)·경봉(鏡峰, 1892~1982)·구산(九山, 1909~1983)·월하(月下, 1915~2003)·일타(日陀, 1929~1999)·일각(一覺, 1924~1996)·석주(昔珠, 1909~2004)·중광(重光, 1935~2002)·고산(杲山, 1933~2021) 스님 등의 그림과 유묵이 있다. 또 서화가 이명우(1923~2005)·구철우(1904~1989)·박기돈(1873~1948)·이도희(1906~1988)·허백련(1891~1977) 등 근현대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있다. 이외에도 1960~1970년대에 활영한 해인사, 미래사, 표충사 등의 생활상이 담긴 사진 자료도 함께 기증했다.

한편 송광사성보박물관은 '송광사의 불화(佛畫)'를 주제로 상설전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전시는 송광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불화 가운데 보물 영산전 후불도를 비롯해 약사전 약사불도, 경내 각 전각에 봉안됐던 후불도, 신중도, 독성도, 일섭 스님의 불화초와 석정 스님이 기증한 불화초 등이 전시된다. 또 보물 영산전 팔상도 가운데 쌍림열반도와 열반도 불화초가 함께 전시돼 조선시대 불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풍암영각의 고승 진영과 여러 전각과 암자에 봉안됐던 신중도를 한데 모아 19세기 송광사 신중도의 화풍을 비교할 수 있다. 여기에 여러 종류의 경전 변상도와 '권수정업왕생첩경도' 목판을 전시, 불교 판화의 멋과 정교함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2월 13일부터 시작한 이번 상설전은 2025년 2월 16일까지 약 1년간 관람할 수 있다. 송광사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은 "그동안 잘 공개되지 않았던 불화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송광사 불화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국·고려 고승 비문 이체자 '한눈에'

국립문화재연구원 '이체자 자전' 발간

고대·고려 고승 비문 63건
이체자 3천자 정리 사전화

'이체자'는 한자에서 자형이 다르지만 같은 글자로 취급되는 글자들을 말한다. 즉, 형음의(形音意)의 세 요소 중에서 형(形)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가 같은 한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일(一)'을 '일(弌)'로 쓰는 것이다. 같은 한자이면서 형태가 다르다보니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오래된 고서나 고승의 비문에서는 더 많은 이체자들이 확인된다.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는 한국 고승 비문들에 나타난 이체자들을 사전 형태로 집대성한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자전 고대·고려편〉을 최근 발간했다.

고승 비문은 승려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행력과 제자. 문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고승의 비문 내용은 당시 불교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특히 왕실의 명에 의해 세워진 고승 비문들은 당대 최고의 문장과 글씨로 이뤄져 문학, 금석학, 불교사, 서예사적 가치가 높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20년부터 한국 전역의 금석문 조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탁본·수집된 석비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해왔다. 그 중 이체자를 정리해서 사전화해달라는 요구들이 이어졌고, 당대 최고 명필과 문인들이 썼던 고승 비문에 나타난 이체자를 정리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자전〉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조성된 고승 비문 63건에 있는 이체자 3000자와 이체자의 비문별 서체 탁본 이미지 7000여 건을 정리해 엮은 것이다. 특히 이번 자전은 한 가지 한자의 변용을 비문별, 시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단초여서 서예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수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은 "고승 비문에는 같은 글자인데 형체를 다르게 쓴 이체자가 많다"면서 "형체가 복잡한 한자는 필획의 일부를 생략하고 일부만 쓰기도 했고, 일부를 간단한 자형으로 대체하기도 했으며, 반복되는 부분을 기호화하면서 약자, 속자, 별자 등의 이체자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체자 서체 자전에는 현재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체자들도 수록돼 있지만 겨우 한두 획의 차이가 있을 뿐 대표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서체적 측면에서 미세한 차이만 있어 굳이 자전을 찾을 필요가 없는 글자들도 모두 수록했다. 이 자전의 이용자 중에는 글자의 형체와 글씨의 서체가 조금만 달라도 어려워하는 초학자도 있기 때문"이라며 "한문에 대한 초학자를 비롯해서 역사학과 서예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이 자전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중앙博, 문화유산 관리자 기본교육

4월 8~15일, '불교회화' 주제
박은경 교수 등 온라인 강연
3월 18~21일 선착순 120명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이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은 문화유산 다량소장처의 사찰스님 및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이 성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회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4월 8~15일 7일간 온라인에서 열린다. 각 분야에 정통한 교수를 초빙, 강의의 전문성을 높였다. 강의는 △한국 불교회화의 이해:고려불화(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사경변상도의 특징과 아름다움(박도화 한국전통문화대 초빙교수) △조선시대의 승려 장인(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 △근대불교의 특징과 이해 (최엽 동국대 미술학부 대우교수) △한국 부화의 재료와 제작기법(박지선 前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성광사 성보박물관의 역사와 성보(유철호 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사)로 진행된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조선, 근대에 이르는 한국 불교회화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핌으로써 시대별 불화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불화가 담고 있는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더불어 불화 재료와 제작기법, 보존처리 과정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불교회화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18~21일 선착순 120명 모집하며 전자우편과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승려연수교육 인정과정으로, 수강 완료시 교육원 연수교육 30점을 인증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www.museum.buddhism.or.kr) 참조. 02-2011-1987

임은호 기자

한국미술사硏, 박물관대학 미술사 강좌

4월 1일~6월 8일, 매주 월요일
선종 성행 · 통일신라 미술 주제

불교미술과 문화재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2024년 1학기 박물관대학 미술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종의 성행과 통일신라 후반기의 화려한 미술'을 주제로 4월 1~6월 8일 10강에 걸쳐 서울 종로 가회동에 위치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2시부터 2시간씩 열린다.

강좌는 △선종의 수용과 통일신라 후반기의 화려한 불교조각(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통일신라 후반기의 승탑과 섬세한 부조상(강삼혜 국립경주박물관 학예관) △통일신라 후반기의 세련된 석탑(소재구 前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통일신라 후반기의 철불상 유행(주수완 우석대 교수) △통일신라 후반기의 아름다운 불교공예-범종, 사리기 등(이용진 동국대 교수) △통일신라 후반기의 유리공예(박천수 경북대 박물관장) △통일신라 후반기의 섬서한 불교문양(고승희 동국대 교수) △통일신라 후반기위 선종의 성향과 불교의 전국화(문무왕 동국대 외래교수) △불국사 불교미술의 전개와 금동아미타·비로자나불상 및 비로자나불상의 성행(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미술답사(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로 진행된다.

6월 29일 열리는 '700년의 고찰, 봉국사의 불교미술 학술세미나'도 참여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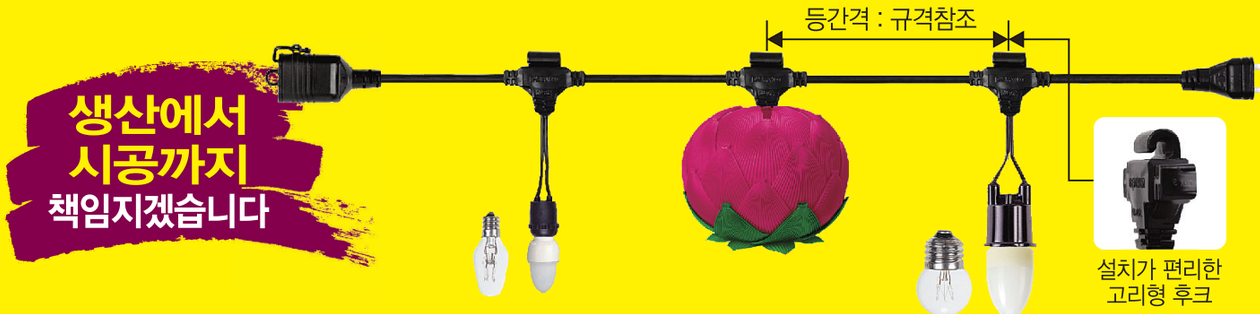
불교가 적극적으로 확산됐던 통일신라 후반기 9세기에는 선종과 화엄종을 중심으로 불교가 성황을 이뤘다. 불교의 전국화와 더불어 불교미술도 불상, 불화, 석탑이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이처럼 중요성을 가진 화려하고 섬세한 통일신라 후반기의 불교미술사를 강좌를 통해 상세히 다룬다"면서 동호인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02-3673-3426

임은호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